

연예종합

김태원 위암 충격...“남격 덕에 부활했네”

촬영 중 발견...두 차례 종양제거 수술
제작진 “한때 프로그램 폐지도 생각했”
열흘간 입원치료 등 투병기 방송 예고

“충격으로 프로그램 폐지도 생각했었다.”
록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사진)이 위암 수술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태원은 현재 방송중인 KBS 2TV 인기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이하 ‘남격’) 촬영 도중 위암을 발견해 최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소속사 관계자는 27일 “1월 위암 초기란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종양제거 수술을 했다”며 “열흘간 입원한 후 26일 퇴원했

다.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원은 수술 중에도 부활의 지방콘서트와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인 MBC ‘위대한 탄생’등의 스케줄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김태원은 1월 중순 ‘남자의 자격’에서 ‘남자, 그리고 암’ 편을 촬영하다 이경규, 김국진 등 멤버들과 건강검진을 받다 위암을 처음 발견했다. 김태원과 같이 출연중인 개그맨 윤형빈은 그에 앞서 대장암 검사에서 유암종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남격’의 제작진은 여섯 명의 멤버 가운데 두 명이나 몸에 이상이 발견되자 한때 심각하게 프로그램 폐지도 고려했다.
연출자 신원호 PD는 27일 스포츠동아와 전

화통화에서 “윤형빈은 김태원에 비해 힘들지 않은 상태였다. 김태원의 검사 결과를 받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고, 프로그램 폐지도 생각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며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지 고민하다가 이경규와 함께 위암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다.
신 PD에 따르면 당시 옆에서 울고 있는 이경규와 달리 김태원은 의외로 담담하게 사실을 받아들이었다. 신 PD는 당초 수술 과정을 비롯해 김태원의 투병기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태원이 “사람들이 자기 몸에 이기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뜻을 밝혀 방송을 결정했고, 투병기는 3월6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박가원-강병현 3년째 열애

본지 단독

인증샷 등 미니홈피 애정 과시
연예인-농구스타 커플 또 탄생

또 한 쌍의 연예-스포츠 커플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2007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 연기자 박가원(25)과 프로농구 전주 KCC 이지스의 ‘꽃미남가드’ 강병현(25) 선수. 85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3년째 연인으로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두 사람의 교제를 지켜본 한 연예계 관계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를 아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이”라고 밝혔다. 박가원도 강병현의 팬이 아니더라도, 농구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이미 꽤 알려진 사실이라며 “KCC 경기가 서울에서 열리면 거의 빠짐없이 박가원씨가 경기장을 찾아 강 선수를 응원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강병현’을 입력하면 ‘강병현 여자친구’ ‘강병현 박가원’ ‘박가원’이란 단어가, ‘박가원’을 입력하면 ‘강병현 여친’ ‘강병현여친’이 연관검색어로 뜰 정도로 두 사람의 만남은 온라인에서도 알려져 있다.
강병현의 팬인 한 누리꾼은 자신의 블로그에 강병현이 박가원에게 ‘공주의 왕자’라고 적힌 리본을 단 꽃배달 사진을 ‘증거사진’으로 올려놓기도 했다.
이 팬은 “박가원은 분위기, 외모가 (강)병현씨와 닮았다. 그래서 속상하다. 왕자의 공주, 축하해주지 못하겠다. 선남선녀 커플”이라



미스코리아 박가원 농구스타 강병현

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강병현 선수는 미니홈피에 ‘사랑하는 내 삶의 one’이라고 쓰고 박가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one’은 박가원의 이름 끝 글자와 동일하다. 박가원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란 글로 이에 화답하고 있다.
예원학교,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발레를 전공하며 발레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박가원은 2007년 미스코리아 선에 오르며 연예계 데뷔했다.
2008년 SBS ‘한밤의 TV연예’ 리포터를 시작으로 드라마 ‘자명고’, 김범수의 ‘이별의 맛’, 타루의 ‘예뻐할게’ 등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케이블 채널 GTV ‘박가원의 더 럭셔리’를 진행했고, 현재 중국 휴대전화 ‘쿠비’의 전속모델로 활동중이다. 하나카드 CF와 차두리가 ‘간 때 문이야’를 외치는 우루사 CF에도 출연한 차세대 유망주다.
2008년 중앙대를 졸업하고 인천 전자랜드 블랙슬래머에 입단한 강병현은 193cm의 키에 잘 생기고 옛된 얼굴, 연예인 못지않은 패션감각으로 많은 여성 팬을 확보하고 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소녀시대가 김연아를 이겼다



한 월간 경제지의 조사에서 기사 노출과 음반 판매, 광고 출연등을 종합한 스타파워에서 지난 해까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피겨여왕’ 김연아를 제치고 올해 정상에 오른 소녀시대.

스포츠동아DB

■ 2011 한국 파워 셀러브리티 40

지난해 국내매출 100억원 등 대박
기사 게재 수·TV광고 등 종합 1위
박지성 2위...김연아는 3위로 밀려

소녀시대가 ‘피겨여왕’ 김연아를 제치고 스타파워 1위에 올랐다.
소녀시대는 월간 경제지 ‘포브스 코리아’가 발표한 ‘한국의 파워 셀러브리티 40’에서 2009, 2010년 연속 1위인 김연

아를 제치고 1위에 자리에 올랐다.
포브스 코리아에 따르면 소녀시대는 기사 게재 수, TV광고, 인터넷 검색, 매출, 활동 등에서 모두 1~3위에 올라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소녀시대는 음반판매에서 국내 최다인 27만 여장(한타차트 집계)을 팔아 2위 슈퍼주니어보다 2만장 이상 많았고, 온라인 다운로드 된 횟수도 1173만 건에 달했다. 또 지난해 찍은 TV광고도 모두 25편에 달했다.
포브스 코리아는 소녀시대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한 해 국내 매

출 100억원, 일본 시장에서 음반판매 수익만으로 8억8000만 엔(약 120억원·산케이스포츠 보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소녀시대에 이어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성 선수와 김연아가 각각 뒤를 이었다.
소녀시대의 브랜드 파워는 미국의 경제전문 블룸버그TV와 세계적인 IT기업 인텔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블룸버그TV는 20일 방송된 시사 종합해설 프로그램 ‘모노클’에서 “삼성·현대·LG는 강력한 한국 최대의 수출 브랜드이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필하는 한국의 파워브랜드는 보아,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케이팝 가수들”라고 분석했다.
스타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인텔도 1월 소녀시대를 최초의 연예인 모델로 발탁하면서 분야를 막론하는 소녀시대의 브랜드 파워를 인정했다.
최근 소녀시대는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에 대중음악의 흐름을 분석하는 내용에 거론된 사실이 27일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설경구·송윤아〉

설·송 부부 “협찬 NO!...내 집 꾸미기 내 힘으로”

육아 고려...인테리어 등 직접 챙겨

설경구·송윤아 커플이 결혼 후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 이사를 앞두고 요즘 집안 꾸미기에 푹 빠졌다.
지난해 초 첫 아들을 얻은 두 사람은 최근 서울 청담동 고급 주택단지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구입해 입주 준비 중이다. 아이의 육아와 교육 환경을 고려해 작은 정원이 있는 빌라를 선택했다.
스타 부부들의 이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인테리어 및 관련 업체들은 홍보효과를 노리고 협찬을 제의한다. 설경구·송윤아 부부도 비슷한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두 사람은 가구는 물론 작은 소품들까지 협찬이나 주위의 도움 없이 직접 고르고 있다.
두 사람의 한 측근은 “이사 소식이 알려진 뒤에 실내 인테리어 업체나 가구 회사 등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결혼하고 처음 구입한 집이기 때

문에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꾸미고 싶어 한다”고 귀띔했다.
새집 인테리어는 송윤아가 더욱 열성이다. 그는 출산 후 연기 활동을 쉬다가 지난해 11월 MBC ‘대한민국 영화대상’ 진행자로서 변함없는 미모를 과시했다. 이후 연예 활동을 자제하고 육아와 집 이사에만 신경을 쏟고 있다.
설경구 역시 영화 촬영 등 일정이 잡혀 있는 활동이 없어 모처럼 휴식을 갖고 있다. 새 영화 ‘타워’가 3월 중순부터 촬영이 시작할 예정이라, 그 때까지는 아내와 함께 집 이사를 돕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송윤아는 출연 제의를 여러 편 받아놓았는데 지금은 육아와 이사 문제로 선택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곧 연기자로 복귀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는 새로운 작품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안재모 신혼집에 도둑...패물 도난

배우 안재모가 결혼 두 달만에 패물을 몽땅 도둑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재모 소속사측에 따르면 지난 26일 안재모의 신혼집에 도둑이 들었고 결혼 패물을 전부 도난당했다.
안재모는 최근 드라마 촬영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내 이다연씨도

임신 3개월로 친정집을 오가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모 부부는 도난 사실을 알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도둑이 가스 배관을 타고 3층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를 참고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안재모가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아내의 결혼 반지라도 돌려달라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공효진·이승기
시청률 구원투수로

6월 방영 MBC수목극 동반출연 예정



공효진과 이승기가 MBC 드라마 시청률 구원투수로 나선다.
공효진과 이승기는 MBC에서 6월 예정인 수목드라마 ‘애정의 발전’(가제) 주인공의 유력한 후보로 불림에 올라 있다. 두 사람은 현재 세부적인 출연 조항을 조율 중이다. 아직 계약서에 정식으로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출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효진은 MBC 내에서는 ‘시청률 효녀’로 통한다. 최근 들어 MBC 드라마에 주로 출연하는 그는 작품마다 평균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출연했던 MBC 드라마 ‘파스타’도 방송 초반에는 한 자릿수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상승해 종방 때는 30%대에 육박했다.
이승기는 이번이 첫 MBC 드라마 출연이다. 그는 SBS에서 시청률 보증수표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9년 주연을 맡은 SBS ‘찬란한 유산’ 시청률은 45%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역시

20%대 중반의 기록으로 인기를 모았다. 두 사람이 출연하는 ‘애정의 발전’은 연예계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한 때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들해진 여배우와 톱스타인 남자 배우가 사랑하는 이야기다.
연출은 ‘선덕여왕’의 박흥균 PD가 맡았고 극본은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를 쓴 홍정은·홍미란 자매 작가가 맡는다.
이승기와 홍 자매는 앞선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췄던 사이. 이승기가 ‘애정의 발전’ 출연을 고려하게 된 것도 두 사람과의 두터운 신뢰가 영향을 미쳤다.
MBC는 최근 1년 여 동안 수목드라마의 시청률 장기 침체에 시달려왔다. 김태희·송승헌이란 막강 투톱의 ‘마이 프린세스’ 역시 시청률 20%를 넘는데 실패했다. 한때 ‘드라마 왕국’으로 불리던 MBC로서는 떨어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효진·이승기 카드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편집 | 강문규 기자 mikkang@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2월 28일〉

1978년 필립인 별세

할리우드 한국인 1호 배우의 명면

제92주년 3·1절이 다가온다. 일제에 맞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내던지며 조국의 독립을 꿈꿨던 시기, 도산 안창호 선생도 길고고 고통스러운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1902년 신학문 개척을 위해 미국으로 간 안창호 선생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고국에 돌아와 독립운동을 펼쳤다.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살던 1905년 장남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필립 안(사진). 할리우드에서 활약한 한국인 1호 배우이다. 필립 안이 1978년 오늘, 3·1절을 하루 앞두고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폐암을 이겨내지 못한 그는 아버지 안창호 선생의 40주기를 10여일 앞두고 별세했다.
아버지가 조국으로 떠난 뒤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던 필립 안은 1936년 31세의 나이에 할리우드 영화 ‘아무 것이라도 좋아’로 데뷔했다. 이후 3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조연은 물론 주연으로까지 활약했다.
존 웨인, 게리 쿠퍼, 프랭크 시



나트라, 험프리 보가트, 록 허드슨, 그레이 고리 패 등의 스타들과 함께 술한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다.
그는 아버지

지의 조국 한국을 수시로 찾았다. 1960년대 초에는 한미합작 영화 제작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도산 선생의 자취를 찾아가는 활동을 펼치며 조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필립 안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 ‘스타의 거리’로 불리며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손도장이 바닥에 새겨진 이 곳에 그의 이름도 있다.
1984년 11월14일 미 로스앤젤레스시는 이 곳에 그 이름을 새겨놓으며 ‘한국의 날’과 함께 ‘필립 안의 날’로 지정해 업적을 기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생명보험협회 상의필 제2010-28648(2010.8.12)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유니버설종신보험II

교보종신의료비보험은 3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